

주요 내용

1. 주제1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직장생활]
재택근무자, 코로나19 이전 대비 12배 증가!
2. 주제2 : [2021 양성평등 및 가정에 대한 국민인식]
미혼 여성 결혼 의향률, 38%!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재택근무자, 코로나19 이전 대비 12배 증가!

올해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가 되어간다. 이 기간 중 직장인의 생활도 변화가 컸는데, 한국갤럽이 작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직장생활의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늘었고, 실직 가능성도 3명 중 1명 이상(37%)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업무 형태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직장가의 하나의 트렌드로써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은행 발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재택근무 이용자는 114만 명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대비 무려 1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장인들의 삶에서 또 한번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42호는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직장인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성도들의 교회 밖 대표적인 일터인 직장생활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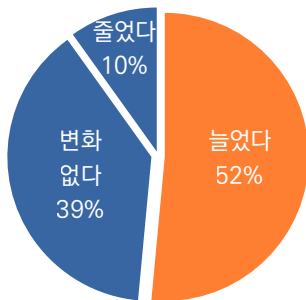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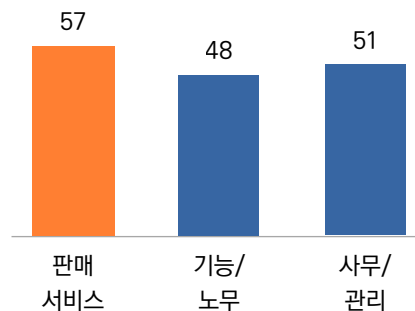
직장인 응답자 절반 이상(52%), 코로나19 이전보다 업무 스트레스 늘었다!

- ▶ 코로나19가 가져온 '직장생활의 변화'는 무엇일까? 한창 코로나19의 영향권 가운데 있던 작년, 한국갤럽에서 전국 직장인 1,204명을 대상으로 '2021 직장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직장인의 절반 정도(5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변화 없다' 39%, '줄었다' 10% 순이었다.
- ▶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 같은 화이트칼라보다 판매서비스 같은 블루칼라층에서 더 스트레스 증가가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업무스트레스' 증감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업무 스트레스' 늘었다 (직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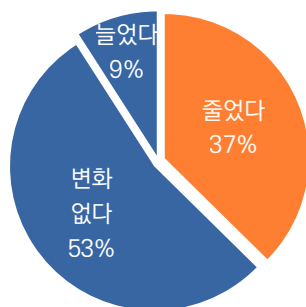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직장인 조사 2021(1) 코로나19 전후 직장생활 변화, 2021.03.29.(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2021.03.04.~12, 온라인 조사)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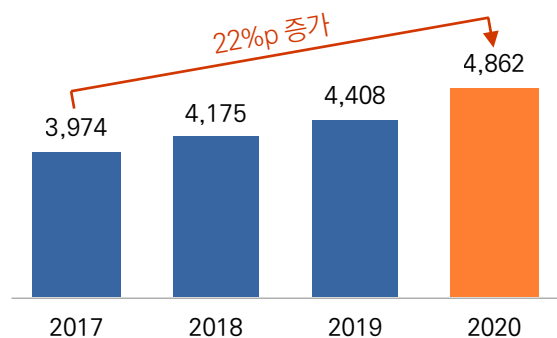
◎ 직장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득 줄었다' 37%!

-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직장인들의 소득 및 경제 상황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사 결과 소득이 '줄었다' 37%, '늘었다' 9%로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직장인이 늘었다는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월소득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직장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직장인 개인 평균 대출은 4,862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 시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2019) 대비 10%p 늘어 연간 증가율로 따지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직장인의 소득/상여금 증감*



[그림] 직장인 개인 평균 대출 추이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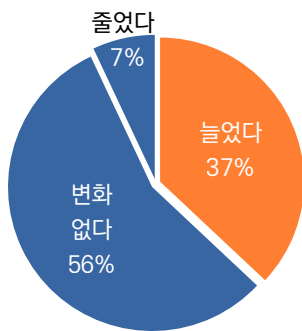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직장인 조사 2021(1) 코로나19 전후 직장생활 변화, 2021.03.29.(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2021.03.04.~12, 온라인 조사)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 2022.03.2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84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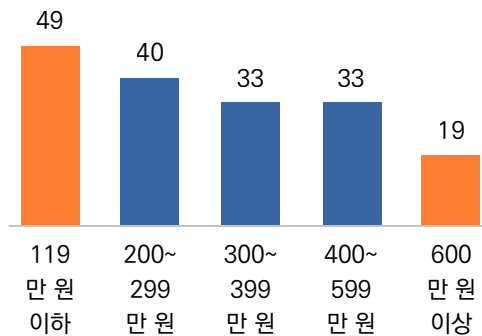
◎ 직장인의 실직 가능성, '늘었다' 3명 중 1명 이상(37%)!

- ▶ 직장인에게 '실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 56%, '늘었다' 37%, '줄었다' 7%로 답해, 3명 중 1명(37%) 이상이 실직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눈에 띄는 점은 '개인 월평균 수입별'로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적을수록 '실직 가능성이 늘었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개인 월평균 수입 최저구간인 '199만 원 이하'인 경우 49%, 최대구간인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9%에서 '실직 가능성이 늘었다'고 응답해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 실제 코로나19 이후 실직 경험은 정규직 8%, 비정규직 31%로 두 집단간 무려 4배 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 ▶ 위의 두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게 더 큰 실직 위기 및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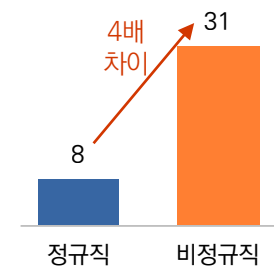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전 비교 직장인의 '실직 가능성' 인식 변화*



[그림] 실직 가능성이 '늘었다' 비율 (개인 월평균 수입별, %)*



[그림] 실제 실직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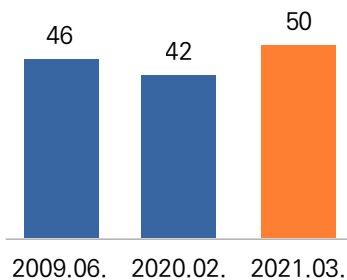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직장인 조사 2021(1) 코로나19 전후 직장생활 변화, 2021.03.29.(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2021.03.04.~12, 온라인 조사)
**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차 설문조사, 2022.04.08.(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2,000명, 2022.03.24.~03.31,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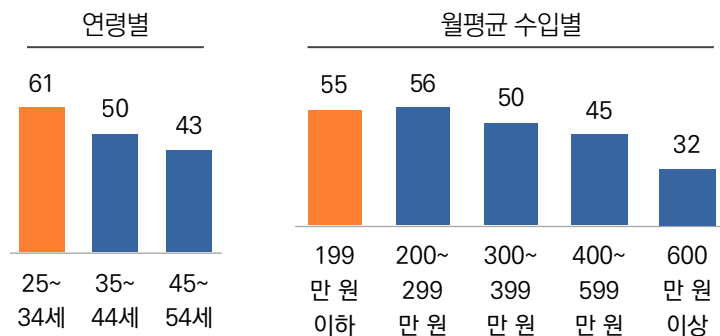
◎ 직장인 절반(50%), '이직·퇴직 의향 있다'!

- ▶ 직장인의 절반(50%)은 기회가 생긴다면 이직 또는 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42%였는데, 1년이 지난 후에는 5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이직/퇴직 의향률' (직장인 전체, %)



[그림] 이직/퇴직 의향률 (계층별, 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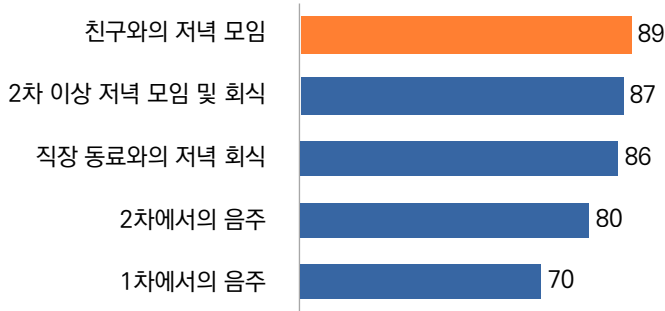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직장인 조사 2021(3) 직장생활 평가와 만족도, 2021.04.14.(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2021.03.04.~12, 온라인 조사)
**7점 척도에서 '5-7' 응답 합계임

02

코로나19 이후, 직장인의 회식 문화 크게 바뀐다!

- ▶ 코로나19 전후 회식 빈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회식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이 다수였는데, 구체적으로 '친구와의 저녁 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이 89%, '직장 동료와의 저녁 회식이 줄었다'는 응답은 86%로, 대다수의 직장인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지인(직장동료, 친구)과의 모임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다.
- ▶ '2차 이상 저녁모임 및 회식'이 줄었다는 응답이 87%, '1차에서의 음주가 줄었다'는 70%로 단순히 회식 빈도 뿐만 아니라 음주량까지 모두 줄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저녁모임(회식) 빈도 '줄었다' 비율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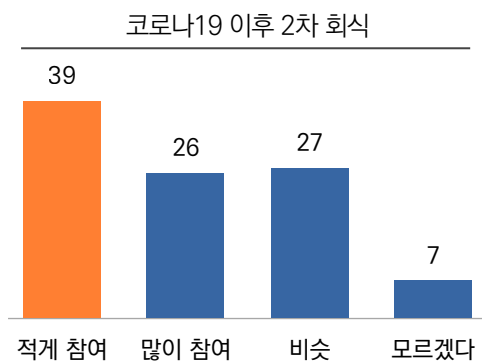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74-1호, 코로나19와 회식문화, 2022.04.06.(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2022.03.11.~14, 웹조사)
 **4점 척도, 매우+약간 줄었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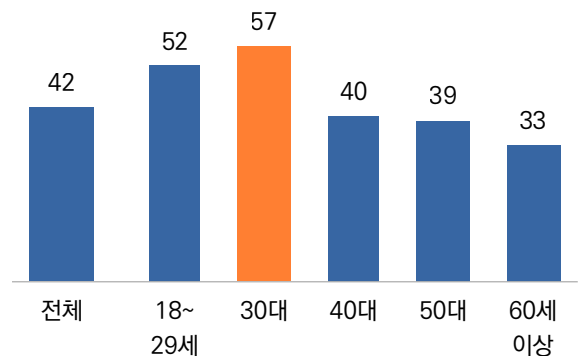
◎ 직장 내 회식 '필요하지 않다' 42%!

- ▶ 코로나19가 끝나면 모임 및 회식의 시간은 달라질까? 코로나19 종식 후 2차 회식에 대한 참여 의향을 질문했는데,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26%)보다는 '적게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률(39%)이 높았다.
- ▶ 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 연령대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은 점에 눈에 띈다.
- ▶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엔 직장인들의 회식 빈도 및 모임 시간이 짧아지는 등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축소된 회식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회식 참여 의향 (직장인, %)



[그림] 단합 및 친목 유지를 위한 회식 '필요하지 않다' 비율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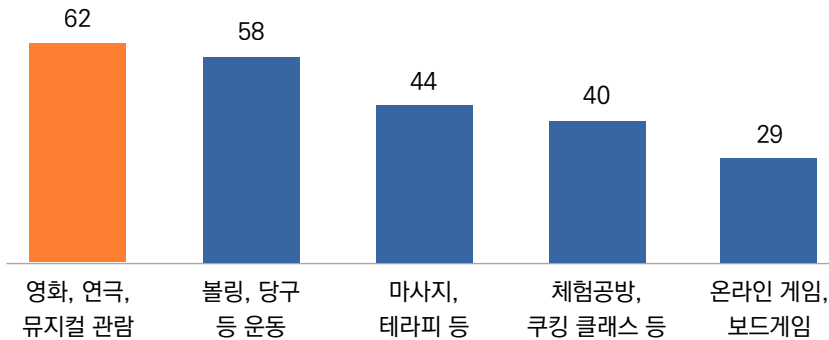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74-1호, 코로나19와 회식문화, 2022.04.06.(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2022.03.11.~14, 웹조사)

◎ 새로운 방식의 회식 문화, 식사/음주가 아닌 '영화·연극·뮤지컬 관람'(62%) 참여의향 가장 높아

- ▶ 그렇다면 기존 회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회사 모임을 진행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영화·연극·뮤지컬 관람'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볼링·당구 등 운동' 58%, '마사지·테라피'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식사/음주로 대별되는 전통적인 직장내 회식문화가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모임 형태로 변화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그림] 새로운 회식 유형 참여 의향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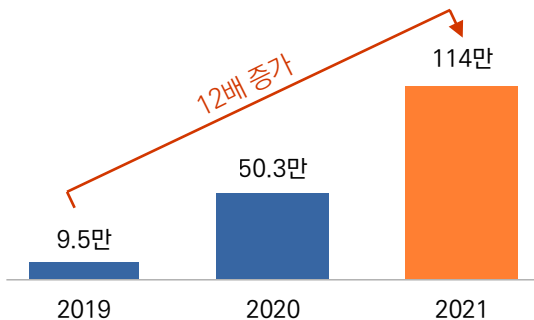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74-1호, 코로나19와 회식문화, 2022.04.06.(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648명, 2022.03.11.~14, 웹조사)

03

재택근무 이용자 114만 명,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12배 증가!

- ▶ 한국은행 발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5만 명이었던 재택근무 이용자는 2021년 114만 명으로 무려 1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림] '재택근무 이용자'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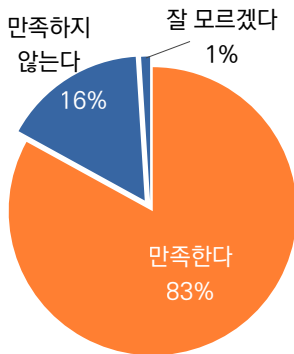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2-4호/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2022.01.20.(<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lId=10068609&menuNo=200433&pageInde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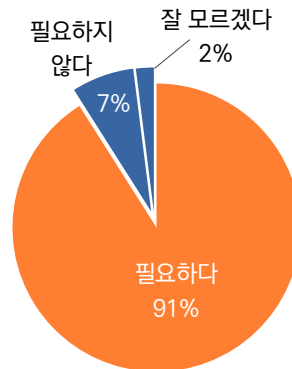
◎ 직장인 대다수(91%), “향후 재택근무의 활성화 필요하다”고 생각해

- ▶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된 ‘재택근무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할까? 재택근무 경험자들의 8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였다. 또, 연령과 직급이 낮을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특징(20대 87%, 평사원 87%)을 보였다.
- ▶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향후 재택근무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91%)고 응답해 재택근무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 (재택근무 경험자, %)



[그림] ‘향후 재택근무제도의 활성화 필요 여부’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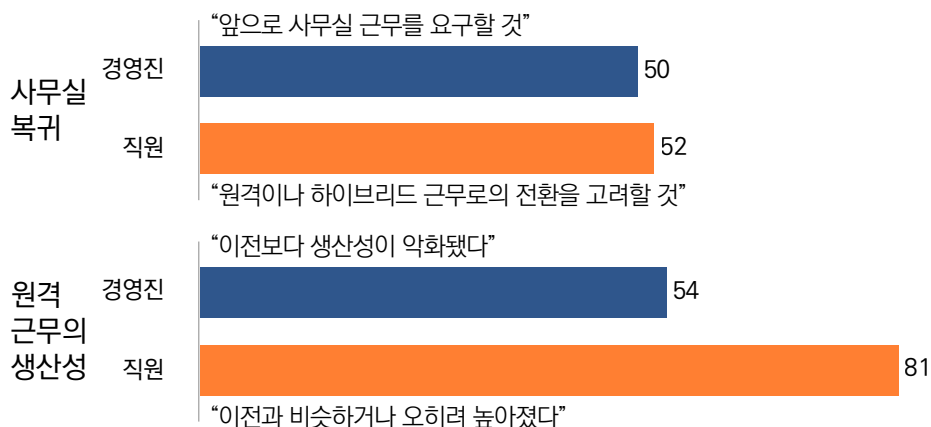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1 직장인 재택근무 경험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2021.07.02.(전국 만 19~59세 직장인 1,000명, 2021.05.28.-06.02, 온라인 조사)

**필요하다(매우+약간), 필요하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 재택근무 놓고 직원과 경영진 인식 차 크다!

-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1개국 31,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업무 동향 인덱스: 연중 보고서(2022 Work Trend Index: Annual Report)’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 절반(50%)은 ‘앞으로 사무실 근무(대면 업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 반면 직원들은 절반 이상(52%)이 ‘내년에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재택근무’에 있어 서로 간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 재택(원격) 근무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경영진의 경우 54%가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로의 전환 이후 ‘생산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우려한 데 반해, 직원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이전과 비슷하거나 생산성이 더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81%로 우세했다.

[그림]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 차이 (31개국 31,000여명 기업 임직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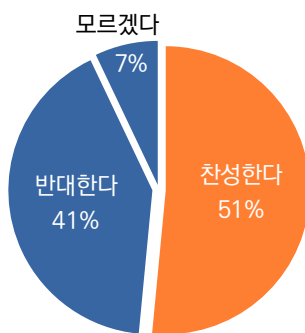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2022 Work Trend Index: Annual Report(Great Expectations: Making Hybrid Work Work), 2022.03.16. (31개국 31,000여 명의 기업 임직원 대상 설문)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출근길에 든 생각, ‘아 퇴근하고 싶다’, 2022.04.14.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4/14/L3J7ZAPG4ZH7JDJ5I2WCK7KD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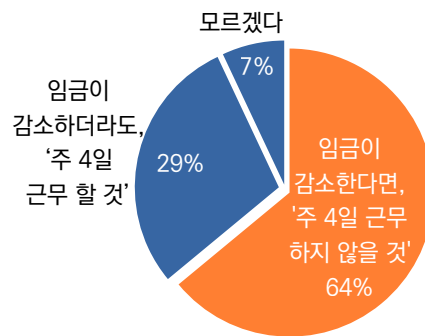
◎ 주 4일 근무제, 3명 중 2명(64%) 임금이 줄어들면 반대!

-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주 4일제 시행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4일 근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 ▶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51%)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고 답한 경우는 찬성 응답보다 약간 낮은 41%로 나타났다.
- ▶ 반면 ‘임금 감소’를 전제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주 4일 근무를 할 것이다’란 응답은 10명 중 3명(29%)에 그쳤다.
- ▶ 이 때문에 직장가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4일간 5일치 업무를 하는 ‘탄력적’ 주 4일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근무형태가 앞으로 점점 더 개발되고 실제 기업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주4일 근무제 찬반 의견' (일반국민)*



[그림] 임금 감소를 전제로 한 주 4일 근무제 인식 (일반국민)*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제153-3호, 국민들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11.02.(전국 성인남녀 1,000명, 2021.10.15.~18, 웹조사)

**자료 출처: 중앙일보, 임금 안 깎고 4일간 5일치 업무 '탄력적 주4일제'에 공감, 2022.04.23. 기사 참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 오면서 사람도, 일터도 집중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에서는 얼마 안되는 공장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상징하는 일관된 생산 체제는 생산 효율성을 위해 팀웍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규칙, 하나의 생각으로 모이도록 강제했다. 농경사회에서 없던 출퇴근 시간이 생겨서 함께 모여 일을 했으며 퇴근 후의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고 또 실제 그런 측면도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인 회식에 대한 생각들이 깨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회식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직장인 중에 '단합 및 친목 유지를 위한 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우며, 특히 20~30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는다.(5쪽) 이들에게 직장 동료는 일로 만난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라고 생각하므로 회식에 굳이 참석할 의무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다.

이들은 회식 대신에 직장에서도 개인 취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활동은 문화(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운동(볼링, 당구 등), 힐링(마사지, 테라피 등), 체험(체험공방, 쿠킹 클래스 등) 등 다양하다. 근무 시간 외의 모임을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다.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고 자신의 취향을 즐기며 존중받기 원한다. 오죽하면 '개취'('개인의 취향'의 줄임말)라는 신조어¹⁾ 까지 나왔겠는가?

재택근무도 달라진 직장 풍경이다. 재택근무는 코로나19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급격하게 늘었는데 2019년에 비해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재택근무를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제도는 늘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직장과 일의 성격도 달라지고 또 재택근무를 해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므로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에 지장이 없게 될 것이다.²⁾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직장 제도와 문화의 변화는 단순히 직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이 문화 코드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는 교회에서의 행사나 운영이 컴팩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전체에 묶어 두고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문화는 더 이상 존립하기 힘들다.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조사해서 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온라인을 받아들였지만 이 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옴니채널 형식으로 온라인이 병행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목회자들보다 사회 변화에 더 민감하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 속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하려고 애쓴다. 반응하지 못하면 도태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 문화 등 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접할 경우 가우뚱하게 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조금 더 교인들의 직장생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 심방이 아닌 목회자의 직장 심방이 필요하다. 대화의 내용은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일터 현장에서 목회자와의 만남은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을 나눌 수 있다. 한국교회가 일터 현장에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가기 기대한다.

1)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26호 '개취를 아십니까?' (2019. 12. 13)>를 참고하며, 문화적 개취 활동의 일환인 '살롱문화도 참고할 것'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49호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모임 살롱문화의 부활!'(2020.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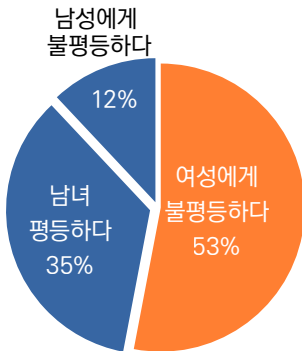
2) 재택 근무에 대해서는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76호 '코로나19가 기업문화를 바꾼다'(2020.12.18.)>를 참고할 것

01

한국인, 남녀모두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 높아

- ▶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2021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3%)이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라고 답해, ‘남녀 평등하다’(35%), ‘남성에게 불평등하다’(12%)보다 훨씬 높았다.
- ▶ 특히 20대의 경우 ‘성평등 수준 체감’에 있어 인식 차를 보였는데,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에 대해 여성은 73%가 동의한데 반해 남성은 29%만이 동의해 44%p의 큰 격차를 보였다. 또,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 남성(24%)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성평등 수준 체감 (전체)



[표] 성평등 수준 체감 (2030세대 기준)

구분		남녀 평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20대	여성	22%	73%	4%
	남성	47%	29%	24%
30대	여성	20%	77%	4%
	남성	40%	4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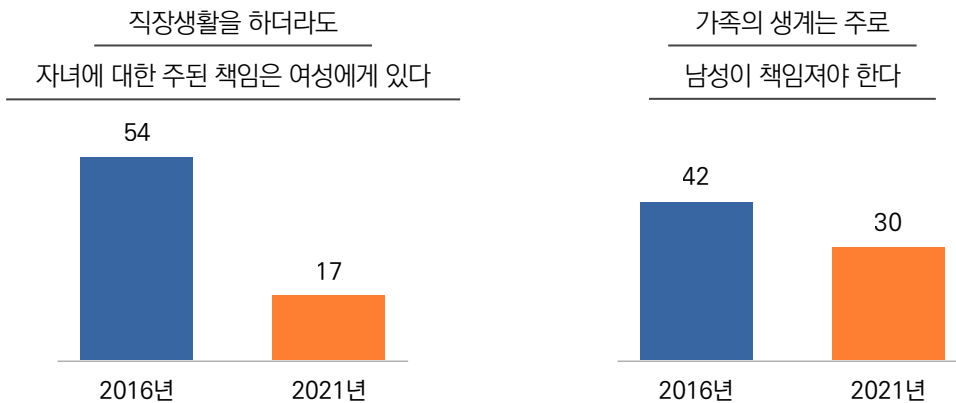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02

“직장생활 하더라도 여성에게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있다”, 2016년 54% → 2021년 17%

- ▶ 가정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5년 전 대비 37%p나 감소(2016년 54%→2021년 17%)했고, ‘가족의 생계를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2016년 42%에서 2021년 30%로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 남녀 모두에서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가족 내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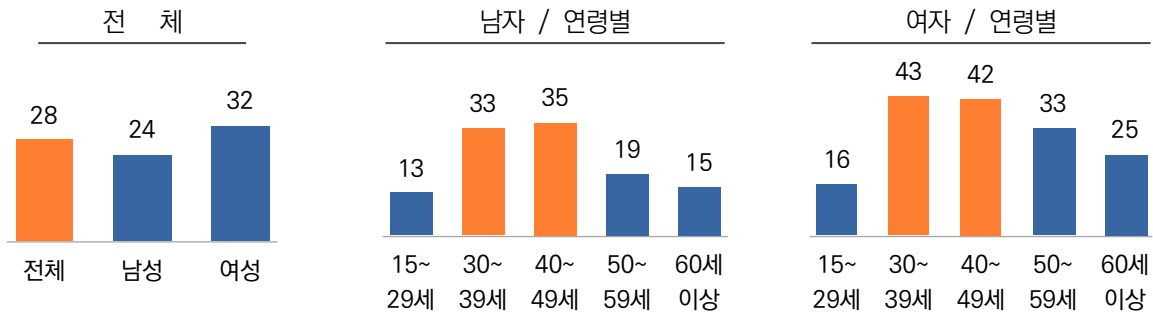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 취업자 부모 10명 중 3명, '가사·양육·돌봄을 병행하는데 어려움 있다'

- ▶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부모를 대상으로 가사·양육·돌봄을 병행하는데 어려움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부모의 28%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30~40대 어머니의 경우 40%를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 ▶ 특히 12세 이하 아동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두 명 중 1명 이상(55%)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사·양육·돌봄을 병행하는데 어려움 있다" (그렇다 비율, 취업자 부모 대상,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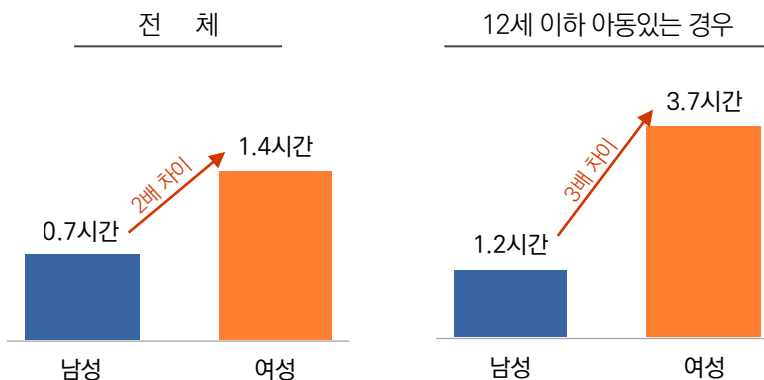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시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길어

- ▶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일 기준 여성이 1.4시간, 남성은 0.7시간으로 여성이 2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 돌봄 시간에 있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 남성은 1.2시간, 여성은 3.7시간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돌봄 시간에 할애하고 있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 돌봄 영역'에 있어 아직까지는 남편보다 아내의 부담과 역할이 큼을 보여준다.

[그림] 자녀 돌봄 시간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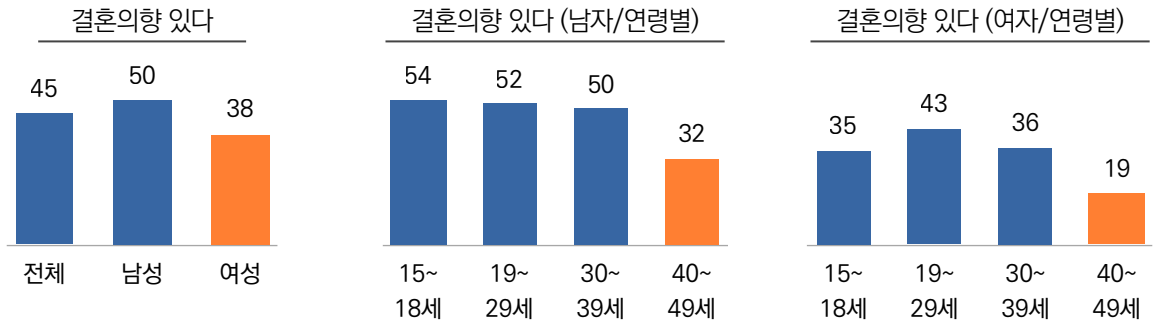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03

미혼 여성 결혼의향률, 38%!

-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는데, 미혼자의 45%만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38%까지 떨어지고 있다.
- ▶ 연령별로 보면 미혼자의 나이가 40대로 넘어가면서 결혼 의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결혼에 대한 인식 (미혼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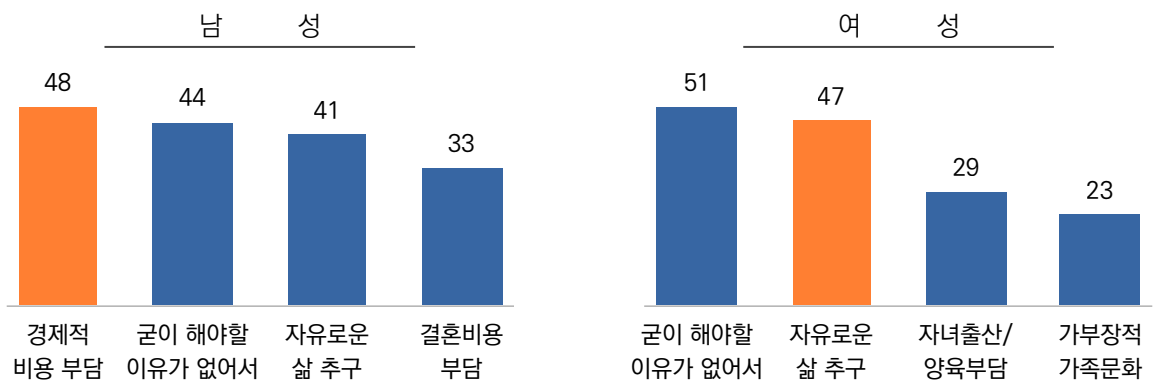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 결혼 망설이는 이유, 남성은 경제적 비용, 여성은 필요성 못느낌

- ▶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여성의 절반(51%)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남성의 절반 가까이(48%)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각각 1위로 꼽았다.
- ▶ 남성의 경우 결혼관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양육'이 적지 않은 부담 요인(29%)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1+2순위, 성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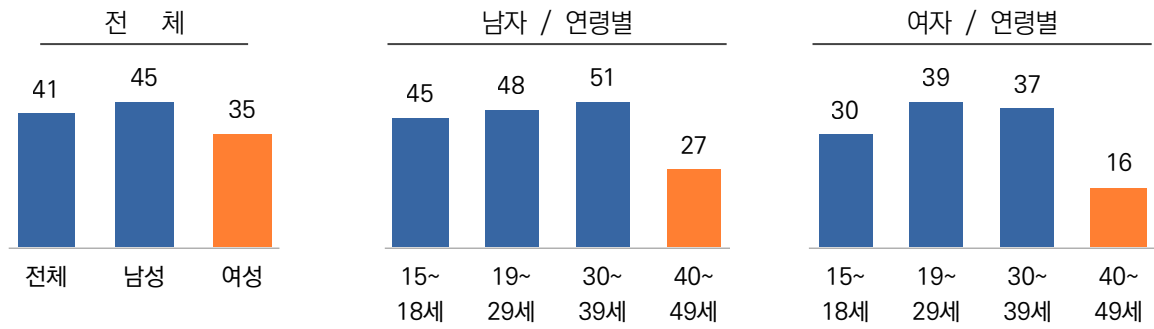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 자녀가 없는 15-49세 여성, 3명 중 1명 정도만(35%) 자녀 출산 의향 있어!

- ▶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의향률을 물어본 결과, 41%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해, 자녀 출산 의향이 무자녀 국민의 채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산 의향률이 낮는데, 40대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의향이 16%로 10명 중 2명 정도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자녀 출산 의향 있다 비율 (15~49세 무자녀 국민 대상,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2.04.19.(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2021.09.27.~10.12,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3호\(2022년 4월 4주\)](#)

-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평가, 정당별 호감도, 국무총리 후보 적합 여부,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 사회 일반

[장시간 노동으로 돈 더 번다고 마냥 더 행복해질까?](#)

연합뉴스_2022.04.29.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

국민일보_2022.04.26.

[아이 키우는데 가구당 한달 97만원 든다...가구소득의 20%](#)

동아일보_2022.04.28.

[소멸위험지역 시군구 전체의 '절반'...“대안 일자리 전략 필요하다”](#)

경향신문_2022.04.29.

['미친 소' 잇었다...고기에 미친 한국인, 밥보다 더 먹는다](#)

중앙일보_2022.04.30.

[국민 60% "여가부 제 역할 못해"...80% "여가부 기능은 필요"](#)

연합뉴스_2022.05.01.

[캠핑 이용자 534만명...전국 캠핑장 5년새 '천667곳-->2천363곳'](#)

연합뉴스_2022.04.28.

[교통사고 사망 3명 중 1명은 보행자...혼용도로 특히 위험](#)

연합뉴스_2022.05.02.

[이주여성 노동자 86% "일터서 차별 겪어...가장 큰 불이익은 급여"](#)

연합뉴스_2022.05.01.

◎ 청소년 / 청년

['베이비부머'~'Z세대' 학생 일상..."요즘 애들이 더 힘들어요"](#)

연합뉴스_2022.05.0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2 아동행복지수' 조사 결과)

[위기청소년 절반 "부모 폭력 경험"...가족 갈등이 주된 가출 원인](#)

연합뉴스_2022.04.28.

['중2병' 이유 밝혀졌다..."엄마보다 다른 여성 목소리에 반응"](#)

중앙일보_2022.04.30.

[청소년들 정신건강·영양상태 나빠지고 전자담배 흡연을 올라](#)

동아일보_2022.04.2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질어진 지구촌 '위세선' 먹구름... "생계 타격 이어 굶주림 위기"](#)

연합뉴스_2022.04.30.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조선일보_2022.04.28.

["지구촌 육지 40%가 사람 때문에 불모지로 퇴화"](#)

연합뉴스_2022.04.28.

◎ 건강

[중년 이후 수면, 하루 7시간이 딱](#)

조선일보_2022.05.02.

['침묵의 암' 췌장암 환자, 4년 사이 29.4% 늘었다...예방 어떻게?](#)

조선일보_2022.04.28.

◎ 기독교 / 종교

["총체적 대응 없이 교회학교 변화 어려워"](#)

크리스찬타임스_2022.04.22.

[국민일보 여론조사 (한국교회 세상속으로...)]

[1. 국민 10명 중 7명 "종교 필요하다" _2022.04.27.](#)

[2. 교회가 가장 잘한 사역 34% "무료 급식" 1순위 _2022.04.27.](#)

[3. "복지 사각 메우는 사역 필요" 나홀로 노인·빈곤층 최우선 꼽아 _2022.04.27.](#)

◎ 이슈큐레이션

[가치에 소비하는 MZ세대, 환경부터 따진다](#)

중앙일보_2022.04.2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리트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요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